

“한전공대를 지켜라” 손 잡은 광주·전남



한전공대 설립 비전 선포 및 범 시도민 지원위원회 출범행사가 25일 오후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한빛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한전공대의 비전선포와 지원위원회의 출범을 기념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당 의원들, 설립 제동 법안 잇따라 발의 ... 국감·예산심의 과정 반대 공세 펼칠 듯 범 시도민 지원위원회 출범...홍보·재정지원 방안 마련에 시·도 적극 협조해 민심 결집

한전공대 유치전으로 다소 소원했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전공대의 차질없는 설립·개교를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았다. 한전공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헤쳐나가기 위해 시·도가 공동 보조를 취하며 지역 민심과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나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이날 열린 한전공대 광주·전남 범 시도민 지원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한전공대의 차질없는 설립과 개교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해 왔다. 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

력·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설립을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의 차질없는 설립·개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날 광주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광주·전남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 현안 사업”이라며 “한전공대가 애초 계획대로 2022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지난 1월 대규모 지원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을 낳은 한전공대 유치전을 계기로 다소 소원했던 관계를 보

여왔다는 점에서 이 시장의 발언을 놓고 다시 상상 기조를 이어가 지역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순전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이어 나주 지원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한전공대가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에너지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핵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 공세를 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장, 광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을 막는 “한국전력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전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설립 반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양 사·도가 광주·전남의 미래를 견인

할 수 있는 한전공대의 차질없는 설립을 위해 역량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광주·전남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공동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날 구성된 지원위원회는 이재준 전 산업부·지식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이견철 동산대 교수와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장, 도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지역기업인, 향우회장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인사들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총괄지원, 대학·설립·연구소유치·클러스터조성·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5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미래 에너지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대학’으로의 한전공대 설립 비전을 알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 협력 방안, 광주·전남·전북 상생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나설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직원 1000여명 채용 어떻게 하나

평균 초임 3500만원 수준 외부 채용회사가 맡을 듯 관리자급 수십명 곧 모집 공장 설립 따라 단계적 채용 지역인재 우대 등 논의 중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회사) 설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평균 초임 3500만원대의 직원 모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원 채용 업무는 광주시나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아닌 외부 인력 채용 전문회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 청년들이 지원할 경우 지역인재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조직체계를 짜고 공장 설립 등 초기 업무를 추진할 관리자급 사무직원 채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5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당면 과제는 크게 인사(조직체계확정)와 공장설립 문제가 될 것이다. 인사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채용 전문회사에 외주를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날 시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체 직원 1000명을 일시에 뽑는 게 아니라 공장 건립 속도 등 회사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선발하게 될 것”

이라며 “(이런 상황은) 오늘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며, 인제 채용이나 회사 조직 체계 등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채용 우대와 관련해선 “광주형일자리라고 광주사람들만 뽑을 순 없는 일”이라며 “지역가점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지, 법적 검토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을 비롯한 회사 주요 현안의 큰 틀은 1, 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논의해 방향 결정이 이뤄지고, 회사 경영진은 이사회를 거쳐 실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시장은 구체적인 시기와 채용인력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조만간 회사 첫 이사회를 거쳐 수십명 내외의 관리자급 사무직원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자동차공장 착공을 위해서 빛그린산단 공장 부지 매입과 공장설계, 공장 건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취득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공식화된 것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3명과 감사 2명 그리고 광주시·광주그린카진흥원 파견 인력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2021년 차량 생산에 앞서 2020년 하반기까지는 모든 관리직 사원과 생산직 사원 등 1000여명의 직원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형호 기자 kh@kwangju.co.kr

내년 도쿄올림픽 南北공동진출 추진

문 대통령, IOC 위원장에 밝혀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올림픽 ‘보이콧’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이냐는 의견까지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올림픽을 통

한 국제교류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나아가 이를 남북 관계개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흐 위원장과 약 28분간 면담을 하며 이런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유엔총회 분회 의장에서 열린 한반도의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비둘기, 평화 상징서 민폐 대상으로 ▶6면
-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 화제 ▶16면
- KIA 전성현 신인왕 역전 노린다 ▶20면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한국표준협회 선정 2019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2018 KS-COI

클러스터품질지수 여행사 부문 1위 수상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지원센터 소비자충실경영(CCM) 우수기업인증

세계권위 여행전문지 TTG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18년 연속수상

산티아고 순례길

국내 유일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산티아고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

최대 50만원 할인
(~9/30까지 예약시)

▶ 동반자 할인 40만원 할인
▶ 추가 할인(4명 이상) 10만원 할인

11/9 11/16 11/23 [단 3회 출발]

4성급 호텔 알베르케 숙박 X

전문 인솔자 동행 순례길 전문 가이드

전용차량 대기 배낭없는 편안한 여행

48년의 노하우가 만든 롯데관광만의 혜택!

산티아고 순례길 + [스페인 3대도시] 9일

5일 걷기 **3,690,000원**

순례길에 집중하고 싶다면
+90유로 | 선택관광 없음
• 목시아/산티아고/피니스테레

산티아고 순례길 + [스페인 북부 8대도시] 9일

4일 걷기 **3,790,000원**

순례길을 체험하고 관광을 동시에
+90유로 | 선택관광 없음
• 루고/오비에로/산티아고

스페인 북부 12대도시 + 프랑스 길 9일

포르투갈 8대도시 + 포르투갈 길 9일

2일 걷기 **3,890,000원**

순례길 맛보기 & 관광 집중 코스
+90유로 | 선택관광 없음
• 리스본/산티아고/피니스테레

가견포함내역: 크루즈 선실료 및 항공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보단계]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일수권고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지] 필요로 하는 일부 선택경비(관광)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 지역의 경우 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너] 소지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행경비는 여행비 가산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종료구분: 일반여행 4678(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인 영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상자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발판차리번호: 1589-8932 ●여행보험: 부산형/속초형 ●최소출발 10명 ●크루즈 2인 1실 사용(일부부담금 제외)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임차된 승객 등 운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